

考試科目	韓文 31116	所別	外交系	考試時間	105 年 2 月 28 日 (日) 第 2 節
------	----------	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韓譯中 (每題 25 分)

1. 역량과 전술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는 사이버전(戰) 특성상 매우 이례적이다. 청와대 사이버안보특보는 "미국은 경제 제재와 보복 공격으로 억제 효과를 가져왔지만, 한국은 단 한 번도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실패했다"고 밝혔다.
2. 1 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.5% 줄어 6 년 5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. 수입은 20.1%의 더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. 덕분에 1 월 무역 흑자는 6 조원을 넘겼다. 13 개월 연속 수출입 동반 감소와 4 년 연속 불황형 흑자라는 유례없는 진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.
3. 이미 한류는 일시적인 바람을 넘어 동아시아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도도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. 앞으로 국제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.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에서 벗어나 쌍방향으로 융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.
4.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양국 정부 사이에 추진되고 있다.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.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주목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'신중동북'의 또 다른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.

備註	一、作答於試題上者，不予計分。 二、試題請隨卷繳交。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